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경 지역 청년 취업·일자리 사업 순항



인제대학교 학생들이 한국마사회 부경본부 취업설명회 경청을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본부장 정형석)이 지역 최대 난제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진행하는 '지역 대학생 공공기관 취업 지원 사업'이 순항 중이다.

이 사업은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을 초청해 공공기관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질의 정보 제공과 지속적 연대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렛츠런파크 부경은 경남·부산 소재 대학 중 모집을 받아 지역적 동일성, 공공기관 채용정보 필요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해 인제대(10월), 경상대(11월), 부산외대(12월)를 선정했다.

참가자들은 행사 당일 렛츠런파크 부경이 제공한 순환 버스로 공원 내 대강당에 집결해 공공기관 취업 지원 관련 강의를 듣는다. 강의에는 공공기관 현황 소개, 국가직 무능력표준(NCS) 준비 방법,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대비 방법이 포함된다.

강의는 렛츠런파크 부경 홍보 담당자와 전공·취업지도

경험·근무 성적 등을 기준으로 선발된 최근 입사 사원이 준비한다.

특히 렛츠런파크 부경은 취업준비생을 격려하기 위한 리프레시 행사도 연다. 학생들은 공원 내부를 투어하며 부산·경남의 대표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를 경험하고, 희망지는 승마도 체험한다.

행사 종료 이후에도 취업 지원 사업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원 활동이 계속된다.

렛츠런파크 부경 관계자는 "올 한 해 '지역 상생'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지역의 난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고 있다.

2019년에도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 밀착형 지원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지역 대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